

# 새내기주 잇단 공모가 하회… IPO 시장 투자심리 위축

7월 이후 상장 첫날 수익률 -4.62% 청약 흥행에도 상장 직후 주가 약세 낮은 의무보유확약·고평가 부담 중복상장 규제·대형주 쏠림도 영향 대어급 IPO 상장에 반전 기대감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투명 교정 기 제작 업체 그래피는 공모가(1만5000원)보다 24.9% 낮은 1만1260원에 첫날 거래를 마쳤다. 전날 상장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기업 니어스랩 주가 역시 첫날 공모가(4만1200원)보다 30.46% 하락한 2만8650원에 장을 마쳤다. 니어스랩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 530대 1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증거금도 2조5000억원 가량이 모였다. 딜리셔스(12일)는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26.6% 하락했고 기도산업(21일)은 34.6% 떨어졌다.

그나마 케이앤에스아이앤씨(13일)가 첫날 종가가 공모가보다 39.8% 상승하며 8월 상장한 '새내기주'의 체면을 살렸지만, 초라한 성적표다.

공모 청약 후 상장 당일 단기 매매로 소소한 차익을 남기는 '치킨값 벌이'는 최근 1~2년간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타로 가족이 한끼를



따능시로 생성한 '코스닥 새내기주 급락' 관련 이미지.

해결할 수 있는 치킨 값은 건진다'는 의미였는데, 7월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이 식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치킨값 벌이도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 ◆개미는 눈물만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5까지 신규 상장주 10개의 첫날 평균 수익률은 -4.62%로 떨어졌다. 레몬헬스케어·딜리셔스 등은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났고, 에이치엘지노믹스는 58.6% 급락했다.

전 분기만 해도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8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은 132.4%에 달했다.

3분기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모주 시장 투자 심리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후 전날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0.45%, 9.72% 내렸다.

특히 중복상장 관련 규제가 공개되자, 기업들이 한국거래소의 첫 심사 사례를 지켜보며 상장 시기를 조절하는 이른바 '눈치 보기' 현상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6일 중복상장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잡정안을 공개한 이후 같은달 31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중소형주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

도 자리잡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O 공모금액은 1조1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감소했고, 신규 상장기업 시가총액도 47.5% 줄었다. 이달 상장한 5개 종목의 예상 시가총액도 모두 3000억원을 밑돌았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8월 IPO 시장 부진의 배경으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반도체 등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을 지목했다. 최 연구원은 "(중복상장)가이드라인 발표가 몇 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낮은 의무보유확약 비중도 상장 직후 주가를 압박한 요인으로 꼽힌다. 기도산업의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0.003%, 니어스랩은 1.26%에 그쳤다. 높은 수요에 즉 경쟁률에도 실제 장기 보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분석이다.

공모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부각됐다. 니어스랩은 수요예측 경쟁률 743대 1, 일 반청약 경쟁률 530대 1을 기록했지만 상장 첫날 30.5% 하락했다. 지난해 매출 66억원, 영업손실 166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RTX와 록히드마틴 등 미국 대형 방산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한 점도 고평가 논란을 키웠다. 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상장 첫날 장중 공모가 대비 123.6%까지 올랐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24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20.5% 낮아졌고,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하락률은 5.6%에 그쳤다.

## ◆대어 상장, 분위기 반전 시킬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중복상장 규제의 영향을 지켜보며 공모주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국지전이나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내포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한 국내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장 조건, 대기업 자회사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규제, 코스닥 시장 내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 추진을 계기로 향후 공모주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휴양콘도 운영업체 소노인 터내셔널은 지난 6월 말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밖에 시장에서는 뷰티 플랫폼 기업 구다이글로벌과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상장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 원리금보장 쏠린 DB형 기업 부담 키운다

DB 적립금 91.9% 원리금보장 편중 수익률 3.5% 임금상승률에도 못 미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되면서 기업의 적립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기업이 부족분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만큼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기업·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기업의 다음 연도 부담금이 줄지만 수익률이 낮으면 기업이 부족한 적립금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228조9000억원으로 45.7%를 차지했다. 그러나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다. 보수적인 운용은 낮은 수익률로 이어졌다. 지난해 DB형 수익률은 3.5%로 확정급여형(IC) 8.5%, 개인형퇴직연금(IRP) 9.4%를 크게 밑돌았다. 최근 5년간 DB형 누적 수익률도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 18.9%보다 3%포인트 낮았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임금이 오르는 만큼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도 늘어나는 구조다. 노동부와 금융원은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최소한 해당 기업의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급여 지급 시기와 운용자산의 투자 기간을 맞추는 전략도 제시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지만 DB형이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내였다. 퇴직급여 부채의 듀레이션은 약 7.1년인 반면 운용자산은 2~3년에 그쳐 금리 하락 시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별 퇴직 시기와 임금 구조를 고려해 자산의 듀레이션을 조정하면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채권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적배당형 상품을 포함해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기업정보와 퇴직급여 부채, 위험 선호도를 분석한 뒤 투자 대상을 다변화했다. 그 결과 DB형 적립금 수익률이 5.9%에서 7.4%, 이후 25.5%로 개선되면서 추가 납입 부담도 줄었다.

/허정윤 기자

## 한화솔루션 유증에 주식 발행 5배 급증

유상증자 1.43조, 전월비 850.7% 증가

지난달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힘입어 기업의 주식 발행액이 전월의 약 5배로 늘었다. 반면 회사채 발행이 줄면서 주식과 회사채를 합친 전체 공모조달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6조 34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999억원(1.9%) 감소한 규모다.

주식 발행액은 7건, 1조492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769억원(37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상증자는 5건, 1조4308억원으로 850.7% 급증했다. 한화솔루션의 1조1713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주식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69.0% 감소했다. 지난해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진 데 따른 기저효과다.

기업공개(IPO)는 2건, 616억원으로 전

월보다 건수는 4건, 금액은 62.7% 줄었다. 두 건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이었다.

회사채 발행액은 315건, 24조8496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768억원(6.3%)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2조7770억원으로 9.3% 늘었지만 금융채는 21조8571억원으로 0.8% 줄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2155억원으로 89.0% 급감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차환 목적에 집중됐다. 차환용 발행액은 1조9120억원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전월 차환용 발행 비중은 31.5%였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이 86.3%에 달했고 A등급은 12.1%, BBB등급 이하는 1.6%였다.

/허정윤 기자

## 한국투자증권, 군산 AI 데이터센터 개발

60MW 연내 착공, 300MW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SGC에너지 등과 군산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김재준 군산시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이우성 SGC에너지대표이사, 나태준 현대엔지니어링 건축영업사업본부장, 안기청 KT호남법인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군산에 60MW(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연내 착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데이터센

터 규모를 호남권 최대 수준인 300MW까지 확대해 전북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사업 전담 법인에 투자하고 PF 주선 등을 맡는다. 데이터센터는 SGC에너지가 보유한 부지에 모듈형으로 건립된다. 입주기업은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 다른 개발 사업과 비교해 안정성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데이터센터 등 뉴이코노미 인프라 투자로 PF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데이터센터 PF 누적 주선 규모는 약 2조9000억원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PF 시장의 27%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에탁결제원, 씨티은행과 외화증권 협력

시스템 통합·결제주기 단축 대응

한국에탁결제원은 전날 부산 본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은행(Citibank N.A.)과 외화증권 업무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의진 에탁결제원 글로벌본부장은 방한한 데이비드 브라운·톰 라이든 씨티은행 일본·북아시아·호주지역 금융기관 영업 부문 공동대표와 만나 외화증권 투자 지원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양 기관은 ▲씨티은행 내부 업무 시스템 통합 ▲결제주기 단축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브라운 씨티은행 일본·북아시아·호주지역 금융기관 공동대표, 권의진 한국에탁결제원 글로벌본부장, 톰 라이든(Tom Lydon) 씨티은행 금융기관 영업 부문 공동대표.

/에탁결제원

에탁원은 "앞으로도 씨티은행과 안전하고 편리한 외화증권 투자지원 3및 글로벌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